

속적 야마구치에 막힌 안세영

독일오픈 배드민턴 준우승 여자복식·남자복식은 우승 화순군청 정나는 혼복 은메달



안세영(삼성생명)이 12일(현지시간) 독일 뮐하임에서 아마구치 아카네(일본)와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 300 독일오픈 여자 단식 결승전을 치르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출신 안세영(삼성생명·세계랭킹 2위)가 속적 야마구치에게 또다시 발목을 잡혔다. 안세영은 13일(한국시간) 독일 뮐하임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 300 독일오픈에서 준우승했다.

여자 단식 결승에서 세계 1위 '속적' 야마구치 아카네(일본)에게 0-2(11-21, 14-21)로 패했다. 1세트 초중반까지 팽팽했지만 8-10에서 야마구치가 10연속 득점을 몰아치며 흐름을 완전히 가져갔다.

2세트에선 안세영이 7-4로 잠시 앞서다가 야마구치에게 연속 득점을 내줘 7-10 역전을 허용했다. 이후 별다른 추격의 기회를 잡지 못했다.

이로써 야마구치와의 상대 전적은 6승 12패가 됐다.

이날 경기는 오후 들어 세 번째로 성사된 맞대결이었다. 공교롭게도 모두 결승전이었다.

새해 첫 대회인 말레이시아오픈 결승에서 안세영은 야마구치에게 1-2로 패해 우승을 내줬고, 일주일 뒤 열린 인도 오픈 결승에서 2-1로 꺾어 시원하게 설욕했다.

인도 오픈에 이어 인도네시아 마스터스도 연속 제패했던 안세영은 독일 오픈까지 3개 국제대회 연속 우승을 노렸으나 아쉽게 이루지 못했다.

남녀 복식에서는 각각 승진보를 띄웠다.

세계 32위 백하나(MG새마을금고)-이소희(인천국제공항)는 여자복식 결승전에서 세계 2위 마쓰야마 나미-시타 지하루(일본)를 2-0(21-19

21-15)으로 꺾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태극전사 맞대결'이 성사된 남자복식 결승에서는 대표팀이 우승, 준우승을 모두 차지했다. 최승규(국군체육부대)-김원호(삼성생명)가 서승재(국군체육부대)-강민혁(삼성생명)과 접전 끝에 2-1(21-19, 18-21, 21-19)로 이겼다. 한편 김원호-정나는(화순군청)은 혼복식 결승에서 썬앤솔-황동평(중국)에게 0-2(4-21, 15-21)로 패해 은메달을 획득했다. 이날 독일 베를린에서는 독일 주니어오픈이 막을 내렸다. 남자복식 박범수(당진정보고)-이종민(광명고)이 중국의 천저한-린상이를 2-1(21-23, 21-14, 21-16)로 역전승해 우승했다. /연합뉴스

화순군청 복싱 주태웅 국가대표 선발

최종 선발 대회 +92kg급 우승



화순군청 복싱팀 주태웅(사진)이 복싱국가대표에 최종 선발됐다. 13일 전남도복싱협회(회장 유성수)에 따르면 주태웅은 최근 경남 김해문화체육관에서 열린 2023년 국가대표 최종 선발 대회 +92kg 결승에서 우승했다.

주태웅은 준결승에서 서순종(성남시청)을 5-0 판정승을 제압하고 결승에 진출했다. 결승전에서 김도현(남해군청)과 접전 끝에 3-2 판정승을 거뒀다. 그는 생애 처음으로 태극마크를 달았고 항저우 아시안 게임 출전 티켓을 손에 넣었다.

전남은 일찌감치 국가대표를 확정지는 임애지(화순군청), 박초롱(화순군체육회)에 이어 주태웅까지 모두 3명의 국가대표를 배출했다.

박지선 화순군청 감독은 "선수들이 흘린 땀과 노력, 화순군과 화순군체육회의 많은 지원으로 좋은 성과를 낸 것 같다"며 "올해도 잘 준비해서 전남 복싱과 전남체육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PGA 세플러, 3주 만에 세계 1위 탈환

플레이어스 챔피언십 우승 임성재·이민우 공동 6위



스코티 세플러(미국)가 '제5의 메이저'로 불리는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플레이어스 챔피언십(총상금 2500만 달러)에서 우승했다. 세플러는 13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폰테베드라비치의 TPC 소그래스타디움 코스(파 72·7275야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버디 5개와 보기 2개로 3언더파 69타의 성적을 냈다. 최종 합계 17언더파 271타를 기록한 세플러는 2위 티릴 헛턴(잉글랜드)을 5타 차로 여유 있게 따돌렸다.

2월 피닉스오픈에 이어 올해 2승, 투어 통산 6승째를 거둔 세플러는 우승 상금 450만 달러(약 59억5000만원)를 받았다.

세계 랭킹 2위였던 세플러는 이번 우승으로 세계 1위 자리에 복귀한다.

세플러는 2월 피닉스오픈 우승으로 세계 1위에 올랐다가 1주일 만에 온 람(스페인)에게 자리를 내줬는데 3주 만에 세계 1위 타이틀을 탈환했다. 람은 이번 대회 1라운드를 마친 뒤 기권했다.

한국 선수로는 임성재가 버디 6개와 보기 4개, 더블보기 1개로 이븐파 72타를 치고 최종 합계 8언더파 280타, 공동 6위로 대회를 마쳤다.

임성재는 자신의 네 번째 플레이어스 챔피언십에서 처음 '톱10'에 진입했다. 종전 이 대회 최고 성적은 2021년 공동 17위였다.

세플러가 13일 열린 플레이어스 챔피언십에서 우승을 확정짓는 뒤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3라운드까지 세플러에 2타 차 2위였던 교포 선수 이민우(호주)는 이날 4타를 잃고 임성재와 함께 공동 6위에 올랐다. /연합뉴스

뼈아픈 일격 당한 광주도시공사

핸드볼코리아리그 최하위 대구시청에 23-25 패 승점 1점 차 '위태로운 1위'



광주도시공사 골키퍼 박은은. 박은은은 12일 부산 기장체육관에서 열린 2022-2023 SK핸드볼코리아리그 대구시청전에서 40%대 방어율을 올리며 골문을 지켰다. <대한핸드볼협회 제공>

핸드볼코리아리그 여자부 1위 광주도시공사가 최하위 대구시청에 일격을 당했다. 오세일 감독이 이끄는 광주도시공사가 지난 12일 부산 기장체육관에서 열린 2022-2023 SK핸드볼코리아리그 대구시청전에서 23-25(11-12, 12-13)로 패했다.

12승 2무 2패(승점 26)를 기록한 광주도시공사는 승점 26으로 위태로운 1위를 지켰다. 2위 삼척시청(12승1무3패·승점 25)에 턱밑까지 쫓기는 형국이 됐다.

광주도시공사는 결정적인 스치 대구시청 풀키퍼 강은지의 선방(방어율 46.5%)에 막히면서 내내 고전했다.

강경민은 10개 슈트를 던져 3점만을 올리는 등 부진했다. 반면 10개 어시스트로 득점을 도왔다.

광주도시공사는 1승 14패로 리그 최하위인 대구시청과 전반전 5-5 동점을 이룬 이후 3골차까지 리드당하는 등 고전했다. 전반 종료로 앞두고 힘겹게 11-12로 점수차를 좁혔다.

강경민은 전반 6개 슈트 가운데 1골만을 넣는 등 골문이 따르지 않았다.

후반 전열을 가다듬은 광주도시공사는 17-15로 전세를 뒤집고 리드를 잡았으나 18분께 18-18로 동점을 허용했다. 이후 대구시청 김아영에게 골을 내주고 18-19로 리드를 빼앗긴 광주도시공사는

후반 24분께 강경민의 골로 22-22로 다시 승부의 균형을 맞췄다. 하지만 대구시청 김선화에게 득점을 허용해 22-23으로 뒤졌으나 후반 27분께 정현희의 골로 23-23으로 동점을 만들었다. 광주도시공사는 경기 종료로 앞두고 총력전을 펼쳤으나 대구시청 김선화에게 연거푸 골을 내줘 23-25로 무릎을 꿇었다. 광주도시공사는 지난 10일 부산 기장체육관에서 열린 경남개발공사전에서는 31-26(18-15, 13-11)으로 승리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3월의 광란' 미국 대학농구 15일 개막

'3월의 광란'으로 불리는 미국대학스포츠협회(NCAA) 남자농구 디비전1 토너먼트가 15일(한국시간) 개막한다. '3월의 광란'은 미국 전역에서 선발된 68개 남자농구 대학팀이 단판 승부로 우승팀을 가리는 대회다. 우리나라에서 관심은 크지 않지만,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는 2019년 스포츠 이벤트 브랜드 가치 평가에서 이 대회를 3위로 평가했다. 당시 1위가 미국프로풋볼(NFL) 슈퍼볼이었고 2위는 하계올림픽이었다. 국제축구연맹(FIFA) 월드컵은 NCAA '3월의 광란'에 이은 4위였다. 지난해 결승에서는 미국의 전통적인 농구 명문 캔자스대와 노스캐롤라이나대의 맞대결이 성사돼

4500만명 이상의 미국 사람들이 총 31억 달러(약 4조761억원) 규모의 배팅 액수를 기록했다는 조사도 나왔다. 지난해 이 대회에는 국가대표 포워드 이현중이 데이비드슨대 소속으로 출전했지만, 올해는 이현중이 미국프로농구(NBA) 하부리그인 G리그에 진출해 한국 선수는 뛰지 않는다. 올해 대회에는 엘라바매대가 전체 톱 시드를 받았고, 지난해 우승팀 캔자스대와 휴스턴대, 퍼듀대가 각 지구 1번 시드에 배정됐다. 올해 1월 여중석이 입학한 곤자가대는 서부지구 3번 시드에 배정돼 14번 시드인 그랜드캐니언대와 1회전을 치른다. 다만 여중석은 다음 시즌부터 경기에 출전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증장로관

즐거움 문화산책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스즈메의 문단속, 엔트맨과 와스프: 퀴텀메니아
2관	대외비
3관	서치 2, 엔트맨과 와스프: 퀴텀메니아
4관	스즈메의 문단속, 바다 탐험대 옥토포닉 육지수호 대작전: 열대우림을 지켜라, 영웅
5관	카운트
6관	스즈메의 문단속
9관	더 퍼스트 슬램덩크
7관 씨네커틀	서치 2, 똑똑똑, 에브리씽 에브리웨어 올 앳 원스+, 크리스 3
8관 씨네커틀	더 퍼스트 슬램덩크, 멍멍이, 6번 칸, 콜 제인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233

2023년 국악상설공연
일시: 2023-03-01(수) ~ 2023-03-31(금)
장소: 광주공연마루
문의: 062)613-8379/8372

BALLET CURATION

광주시립발레단 기획공연 발레상용곡서트 II <단원안무전 Ballet Curation>
일시: 2023-03-31(금) 19:30
2023-04-01(토) 15:00
장소: 빛고을시민문화관
문의: 062-415-5502 / 062-522-8716